

# 1945년 해방기부터 1950년대 전쟁기까지 방인근의 탐정소설\*

—범인 설정 구도를 중심으로

최 애 순\*\*

## 요약

방인근은 해방 이후 『방랑의 기인』이나 『마도의 항불』과 같은 연애소설이 아닌 장비호 탐정을 내세운 탐정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한다. 『국보와 피적』, 『원한의 복수』, 『방화 살인사건』 등의 창작물과, 『살인범의 정체』, 『마수』, 『천고의 비밀』 등의 번역물을 포함한 탐정소설을 대거 창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수많은 탐정소설은 현재 거의 사라졌다 싶을 정도로 명맥이 끊기고 장비호 탐정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다. 1950년대 수많은 독자를 양산하며 주름을 잡았던 장비호 탐정은 왜 소리소문 없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까. 대부분의 탐정소설에서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은 탐정이다. 그래서 탐정소설 작가들은 ‘탐정’을 내세우고 그 탐정이 유명해지길 바란다. 그런데, 한국 탐정소설에서 탐정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탐정보다 ‘범인’을 묘사하는데 더 공을 들인 것이 아닐까. 이런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여 본 논문은 방인근의 탐정소설에서 장비호 탐정의 활약이 전쟁기에 점점 약해지는 현상에 주목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방인근의 탐정소설에서 탐정 장비호의 활약 대신(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범인을 누구로 설정했느냐를 중심으로 따라가 보기로 하겠다. 탐정소설에서 범인을 누구로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당대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어 그 시대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살피는 데 효과적이다. 방인근의 탐정소설에서도 해방기, 1950년대 전쟁기, 전쟁기 이후의 1950년대로 이르기까지의 범인의 설정 구

\* 이 연구는 2018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타블라라사 칼리지 조교수

도가 각 시대에 따라 변모한다. 민족의 원수가 범인이었던 해방기에서 개인의 애정의 대가를 보상받지 못한 일그러진 성의 소유자와 소년이 범죄에 가담했던 전쟁기까지의 범인 설정의 변모 양상을 따라가는 것은, 그 시대의 변화하는 사회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범인의 변모 양상을 통해, 대중의 억눌려진 분노와 정의사회구현에 대한 대리만족 카타르시스, 모든 체제가 붕괴되었을 때의 대중의 욕망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더불어, 전쟁기 이후의 탐정소설에서는 범인을 누구로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라가 보았다.

지금까지 방인근의 1950년대 탐정소설 연구는 장비호 탐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장비호 탐정이 현재 잊혀진 이유가 탐정의 지적 수수께끼 게임 대신 그 자리를 범죄 자체의 부각, 혹은 실제 범인의 행적으로 채웠기 때문으로 보았다. 탐정소설의 주인공이 반드시 탐정이어야 한다는 고전적인 공식을 깨고, 범죄자나 희생자의 시각으로 전개되거나 범죄 자체가 부각되는 양상을 짚어보기로 한다. 1945년 해방기부터 1950년대 전쟁기까지의 방인근의 탐정소설은 한국 사회의 역동기와 변화하는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 1950년대 탐정소설에서 범인이 스파이나 간첩으로 공식화되는 것과 달리, 방인근의 해방기와 전쟁기 탐정소설의 범인 설정 구도의 변모 양상은 우리가 놓치고 소홀히 다루었던 것들을 드러낸다. 읽을거리가 충분치 않았던 불안정한 시기에 내놓았던 단행본들은 문학잡지나 기관지보다 이데올로기로부터 훨씬 자유로울 수 있어서 대중의 감성을 그대로 녹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1945년, 해방기, 1950년대, 전쟁기, 방인근, 탐정소설, 장비호 탐정, 권선징악, 범인, 미국 범죄소설, 범죄, 범죄자 계층, 민족의 원수, 복수, 일그러진 성, 국보와 괴적, 원한의 복수, 범죄왕, 악마

목차

1. 서론
2. 해방기 방인근의 탐정소설과 민족의 원수
3. 전쟁기 탐정소설의 탐정의 약화와 범죄자 계층의 형성
4. 한국 탐정소설에서의 범인 설정 계보
5. 결론

## 1. 서론

방인근은 사재를 털어 『조선문단』을 창간하였으며, 1930년대 『마도의 향불』, 『방랑의 기인』을 쓴 작가로 알려져 왔다.<sup>1)</sup> 방인근은 식민지시기 『조선문단』을 창간할 정도의 재력을 겸비했었으나, 해방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며 생업으로 수많은 번역과 창작을 하게 된다 그는 해방 이후 연애소설이 아닌 『국보와 괴적』, 『원한의 복수』, 『방화 살인사건』, 『살인범의 정체』, 『마수』, 『천고의 비밀』 등의 탐정소설을 창작하고 번역한다.<sup>2)</sup> 해방 이후 1950년대 청계천 골목 헌책방을 뒤지며 방인근의 탐정소설을 탐독했던 당대 독자들은 그의 탐정소설을 지금은 잘 접할 수도 없고 방인근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도 현대 독자들이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인생무상을 이야기하기도 한다.<sup>3)</sup> 문단에서 생계형의 글을 쓰던 방인근<sup>4)</sup>은 대중문학가라 하여 문단 중심의 문학사에 남지도 못했고 그의 글들은 서지 작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sup>5)</sup> 변안인지

1) 윤정현, 「방인근 소설에 나타난 작가적 자아의 실상」, 『비교한국학』 3권 0호, 1997.8, 119-133면; 김성환, 「『마도의 향불』의 대중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28집, 2009.8, 61-99면; 최애순, 「식민지조선의 여성범죄와 한국 팜프파탈의 탄생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통권 115호, 2009.여름, 165-192면; 조경덕, 「방인근의 기독교 소설 연구-방인근의 『기독교신보』 연재소설 『새나라를 차지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9권 0호, 2014.5, 513-541면.

2) 방인근이 해방 이후 연애소설에서 탐정소설로 전환한 것과 정반대로 식민지시기 탐정소설 작가였던 김내성은 해방 후 1950년대 연애소설로 방향을 바꾼다.

3) 고정일(소설가, 동서문화 발행인), 「삶의 향기 명탐정 장비호의 추억」, 『중앙일보』, 2009.11.11.

4) 보름 동안 들어앉아서 쓴 게 『인생극장』이다. 나도 아무리 먹는 일이라 하지만 어지간하다. **일금 백만원에 아주 판권을 팔라는 거다.** 인세는 싫다는 거다. 출판업자는 비슷비슷하다. 그것도 몇 번에 나누어 준다든 것. 싫다고 할 수 없다. 지금 그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판이다. 원고료 받아 가지고 와서 오래간만에 불고기에 삶아낸 것 같았다./ 『인생극장』은 불이 나게 팔려 중판 중판. 그러나 인세가 아닌지라 내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 그들은 이것을 노리고 나는 언제나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밖에.(방인근, 『황혼을 가는 길』, 삼중당, 1963, 248면)

5) 방인근의 작품들에 관한 서지 작업은 광승숙의 「방인근의 탐정소설 연구」라는 한국연구재단

창작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작품들도 많아서 서지 목록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글들 썼다는 것은 적어도 그만큼 많은 독자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방인근의 작품들은 읽을거리가 없었던 해방기와 전쟁기에 알게 모르게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전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창작되어 1950년대 장비호 탐정시대를 열었다. 해방기와 전쟁기에 대중들이 원했던 것은 심오하고 복잡한 작품이 아니라 잠시라도 힘들고 고단한 삶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욕망의 분출구로서의 읽을거리였다. 식민지시기부터 시대의 흐름을 포착하는 데 민감했던 방인근은 해방 이후에도 민족의 정서나 억눌린 감정, 당대 분위기와 대중 코드를 짚어낸다. 문학잡지나 기관지에 실린 단편들이 이념적이고 내면적인 심리묘사에 집중하는 동안, 방인근의 탐정소설은 해방 이후 팍팍한 삶에서 대중의 분노와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정의구현을 향한 열망을 불태우며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해방 이후 1950년대 탐정소설은 연구자들에게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영역이다.<sup>6)</sup> 가령, 김내성의 탐정소설도 『백가면』이나 『마인』과 같은 1930년대에 집중되어 있고, 1950년대로 넘어오면 김내성은 『청춘극장』이나 『애인』, 『실락원의 별』과 같은 연애소설 작가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김내성의 탐정소설은 1950년대에도 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황금박쥐』, 『검은별』(번역소설), 과 같은 소년탐정소설물들이 1950년대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탐정소설 목록은 1930년대에서 그치

2016년 과제 연구결과물 참조.

6) 국내 추리소설(탐정소설)은 식민지시기와 1960년대 정도까지 사용되다 이후 추리소설이 보편적인 용어로 현재까지 통용됨. 그래서 전반적인 의미로 사용할 경우 추리소설이란 용어를 쓰기로 함) 연구는 식민지시기에 몇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될 정도로 축적되어 있으나 해방 이후로 오면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해방 이후의 추리소설 연구는 다음 논문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광승숙, 『방인근의 탐정소설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34호, 2016.8, 69-98면; 이정옥, 『1950-1960년대 추리소설의 구조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15집, 2001.6, 183-202면.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창서관에서 간행된 신태삼의 『혈루의 미인』이나 『악마의 눈물』은 탐정소설 서지 목록에서 1951년으로 되어 있는데, 1935년과 1936년 작품이다.<sup>7)</sup> 그러나 식민지시기의 작품들이 전반기인 1951년 다시 출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탐정소설에 관한 연구들이 해방 이전인 식민지시기에 집중되어 왔다는 점에 감안하여, 해방 이후의 시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에 탐정소설로 전환하여 장비호 탐정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낸 방인근에 주목한 이유도 그가 해방기부터 꾸준히 탐정소설을 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방인근의 해방 이후의 탐정소설에 관한 주목은 추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까지 한국 탐정소설의 후속연구 작업들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방인근은 김내성과 쌍벽을 이루며 전반기 부산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작가이다. 특히 부산 영도를 배경으로 하는 『마도의 향불』이 재판되어 인기를 끌었다. 영화 〈마도의 향불〉은 1958년 최무룡, 석금성 주연으로 제작되기도 한다. 『마도의 향불』에서 영철과 애희의 연애서사에 식민지시기 본부 살해사건과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렸던 방인근은 해방 이후 장비호 탐정을 내세운 탐정소설을 창작하게 된다. 1950년대 방인근의 탐정소설은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다. 1930년대 그의 연애소설을 살펴보면, 다른 연애소설 작가들에 비해 범죄 모티프, 도시의 어두운 분위기, 당시 향유 문화와 이슈화된 사건 등이 작품의 서사를 결정하는 핵심 동인이다. 식민지시기에 명탐정 유불란이 있었다면, 1950년대에는 탐정 장비호가 헌책방 골목들 사이에서 전쟁으로 피해를진 대중들에게 재미를 주고 있었다.<sup>8)</sup> 방인근은 해방기 『살인마』, 『국보와 피적』(문운당, 1948), 『원한

7) 1950년대 탐정소설 서지 목록은 조성면의 『대중문화와 정전에 대한 반역』(소명출판, 2002)과 최예순의 『조선의 탐정을 탐정하다』(소명출판, 2011), 『미스테리아』 19호(엘릭시르, 2018.8/9, 43-47면)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8) 고정일은 장비호 탐정하면 방인근이었고, 유불란 탐정하면 김내성이었다고 회상하며 1950

의 복수』(문연사, 1949)에 이어, 전쟁기 『범죄왕』(범조사, 1951), 『범죄왕』(문성당, 1951), 『악마』(문성당, 1951), 『괴시체』(대지사, 1952) 등의 장비호 탐정 시리즈를 찍어내고 있었다. 『방랑의 가인』에서 실제 두 연인의 사랑의 도피 행각을 다루었고, 『마도의 향불』에서는 당대 이슈화된 본부 살해사건을, 1950년대 『아리랑』 잡지에는 ‘실화소설’을 연재하는 등 작품마다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담아냈다.<sup>9)</sup> 본 논문에서는 방인근의 탐정소설 중 역사적 전환점의 시기였던 해방기와 전쟁기 작품에 주목하여 그 시대를 방인근이 어떻게 짚어냈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탐정소설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탐정이다. 그래서 탐정소설 작가들은 ‘탐정’을 내세우고 그 탐정이 유명해지길 바란다. 그런데, 한국 탐정소설에서 탐정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탐정보다 ‘범인’을 묘사하는데 더 공을 들인 것이 아닐까. 탐정소설에서 범인을 누구로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당대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어 그 시대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살피는 데 효과적이다. 방인근의 탐정소설에서도 해방기, 전쟁기, 전쟁기 이후의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따라 범인의 설정 구도가 변모한다. 민족의 원수가 범인이었던 해방기에서 개인의 애정의 대가를 보상받지 못한 일그러진 성의 소유자와 오갈데 없는 고아 소년이 범죄를 공모했던 전쟁기까지의 범인 설정의 변모 양상을 따라가는 것은, 그 시대 대중 감성과 이데올로기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인근의 1950년대 탐정소설 연구는 장비호 탐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장비호 탐정이 현재 잊혀진 이유가

년대 당시 밤새워 탐정소설을 읽던 추억을 회상한다. 방인근은 학생부터 가정주부까지 읽는 국민 작가였는데, 지금은 아는 이가 없어 인생이 무상함을 느낀다고 한다.(고정일(소설가, 동서문화 발행인), 『삶의 향기 명탐정 장비호의 추억』, 『중앙일보』, 2009.11.11), 1950~1960년대 방인근 작품의 인기는 상당하였으며, 독자들은 방인근의 ‘장비호 탐정’이 등장하는 탐정소설이나 ‘장미가 등장하는 애정소설을 열렬히 탐독하였다고 한다.(정규용, 『정규용의 문단 뒤안길-방인근의 잊혀진 세월』, 『중앙일보』, 2009.7.5.)

9) 방인근, 『실화소설 의혹의 그림자』, 『아리랑』, 1958.4.

탐정의 역할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본다<sup>10)</sup> 대신 그 자리를 범죄 자체의 부각, 즉 범인의 범행으로 채웠다고 보고, ‘범인’을 어떤 인물로 설정했는지를 중심으로 따라가 보고자 한다. 1950년대 탐정소설의 범인은 공산당이나 간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산당이나 간첩으로 범인을 설정하는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효과적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방인근의 해방기와 전쟁기 탐정소설은 그 시기를 그린 국내 탐정소설이 없어서 반공 이데올로기로 많은 것들이 편입<sup>11)</sup>되어 가던 1950년대의 천편일률적인 양상에 균열과 틈새를 드러낸다. 해방기와 전쟁기의 범인이 간첩이나 공산당이 아니라 친일파나 소외 계층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각 시기의 범인 설정이 그 시대의 특징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인근의 해방기와 전쟁기 탐정소설을 통해 우리가 반공 이데올로기에 간혀 놓쳤던 당시 대중의 억울함이나 분노, 법과의 괴리, 혹은 소외된 계층이 범죄자로 인식되던 시대적 상황을 짚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방인근의 단행본 소설이 탐정소설이라는 대중적 장르를 활용하여 해방기와 전시기 제도권 밖에서의 아래로부터의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고 본다. 기존의 문단 체제가 흔들리고 있을 때, 오히려 대중문학이 새롭게 부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단문화가 확고할 때는 움츠리고 있다가 문단문화가 변화의 조짐이 있거나 위태로울 때, 오히려 대중문학

10) 이정옥은 1950년대 추리소설이 탐정의 기능이 약해지고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했다(이정옥, 『1950-1960년대 추리소설의 구조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15집, 2001.6, 183-202면, 192면 3장 〈탐정의 기능 축소와 역할의 변화: 변형 추리소설적 특성〉 부분 참고)

11) 반탁 운동 이전에는 친일파가 민족 반역자로 규탄과 청산의 대상이었지만 반탁 운동을 계기로 친탁 세력이 민족 반역자, 매국노로, 반탁 운동을 벌인 친일파가 애국자로 변신한 것이다. 친일파 문제는 공산당을 잡기 위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며, 이후 반공의 논리가 다른 논리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김민철,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책세상, 2012, 244면) 방인근의 탐정소설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전면화되기 전의, 친일파 문제라든가, 친일파와 독립후손과의 뒤바뀐 양상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 자생력이 살아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방 이후 대중들에게 위안이 되고 읽을거리를 제공했던 것은 문학잡지나 기관지에 실린 단편이 아니라 문단에서 독자영합주의라고 비판하던 소위 ‘통속문학’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방인근의 해방 이후 탐정소설은 기관지문학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독자에게 다가갔으며, 문화와 함께 전파되는 이데올로기의 파급력은 상당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령, 방인근이 도적이나 범인은 소위 공산당이나 간첩으로 설정하는 것이나 정비석이 미국 문화를 여성의 기호품으로 설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본 연구는 대중문학에 나타난 것이 기관지문학이나 문단문학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당대 파급효과가 결코 미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는 제도권 안에서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부터, 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욕망이 분출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가 지나치게 문단 위주였다는 점을 감안하고, 문단에서 소홀히 다루었으며 누락되었던 해방기와 전쟁기 방인근의 탐정소설에서 대중들은 어떻게 그 시대를 견뎌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불안과 혼란이 증폭되는 시기일수록 대중문학 장르가 활성화되곤 한다. 일제 강점기에 신문소설이나 대중문학이 창작되었듯, 해방기와 1950년대 수많은 연애소설과 탐정소설이 창작되었던 것은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 2. 해방기 방인근의 탐정소설과 민족의 원수

식민지시기에서 해방기를 맞으면서 탐정소설의 범인은 여성에서 남성, 즉 민족의 원수로 변모한다. 식민지시기 김내성의 『마인』이나 채만식의 『염마』에서 ‘악마’의 이미지를 띠고 범인으로 설정되었던 후처이자 요부였

던 여성은, 해방 이후 탐정소설의 범인 구도에서 드디어 풀려나게 된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악’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범인은 ‘민족의 원수’이다. 식민지시기 직접적으로 ‘악’으로 규정할 수 없었고 대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붕괴를 막으려는 남성들이 후처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면 해방 후에는 친일파나 일본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에 이른다. 법과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현실에서 탐정소설에서 민족의 원수를 잡아서 벌하면서 느꼈을 대중의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따라가 보기로 한다.

### 1) 민족의 원수 친일파와 잔존 일본인-『국보와 괴적』

방인근의 『국보와 괴적』은 1948년에 출판되었다. 『국보와 괴적』에서 범인은 개인의 원수가 아닌 국보를 팔아넘기려는 ‘민족의 원수’이다. 1948년은 해방을 맞이하여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아직까지 국내에 잔류하고 있었던 일본인이 있었다.<sup>12)</sup> 『국보와 괴적』(1948)에서 국보를 훔쳐서 팔아넘기려는 악마는 함구진(하마구찌)이라는 조선사람 행세를 하고 있었던 일본인과 친일파 피달수이다. 이 둘은 고구려시대의 금귀걸이와 신라의 왕관을 국립박물관에서 훔쳐서 모조품으로 대치해 놓고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 그러다 모조품을 만들었던 금세공업자가 다시 갖다 놓을 것을 중용하자 이에 금세공업자 김선국을 죽이면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장비호는 처음에 미망인 금숙을 요부, 독부라 여기며 의심한다.<sup>13)</sup> 실제

12) 방인근의 『국보와 괴적』은 해방기뿐만 아니라 전쟁기(평범사, 1951)에도 출간된다. 그러나 방인근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기간 동안 그곳에 있다가 『국보와 괴적』 때문에 고초를 겪는다. 친일파와 일본인을 겨냥한 ‘괴적’이 전쟁기에는 ‘인민군’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이다. “왜 숨어 다니는 거야?!” “아니올씨네. 일전에 군자면에서는 다 조사를 받고 서울로 가는 길을 올 씨다.” “임자가 『국보와 괴적』을 썼나?!” “네-!” “**국보라는 건 국군이요, 괴적이라는 건 인민군이지?**!” “아뇨, 내용은 탐정소설입니다.” “거지뿌리 그만두라우. 이렇게 때려야 바른 대로 말하겠음마.”(방인근, 『황혼을 가는 길』, 삼중당, 1963, 229-230면) 방인근의 이 일화는 널리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쓴 글에도 들어가 있지만, 고정일이 방인근을 회상하는 글에도 이 일화가 들어가 있다.

로 그녀는 옆집 정태술과 치정관계가 있었으며, 경찰 쪽에서도 정태술을 범인으로 잡아 가두어 놓았었다. 이런 의심은 식민지시기부터 이어져 온 ‘범인은 치정관계에 얽힌 요부’ 구도를 답습하는 수사이다. 이런 점에서 해방기 방인근의 탐정소설에서 식민지시기의 특징이라든가 권선징악이라는 전근대적인 요소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 의심했던 금숙이 범인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식민지시기 탐정소설과 범인 설정에서 구도를 달리한다.

이때 탐정 장비호의 역할은 국가의 보물을 찾아서 박물관에 되돌려 주는 애국자이며 친일파 피달수와 일본인 하마구찌를 잡아다가 벌하는 정의수호자이다. 하마구찌와 피달수를 잡기 위해 동경에서 상해까지 가는 여정은 장비호 탐정의 스케일과 활약상을 보여주며<sup>14)</sup>, 동시에 당시 국가의 보물이나 친일파 재산이 국외로 빠져 나갔던 상황을 짐작케 한다. 밀수와 밀거래가 횡행하던 시절에 일확천금을 모았던 자들의 이야기를 탐정소설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다. 피달수의 집 문지기는 해방 후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주인을 보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한다. 장비호의 “참말 해방 덕분에 부자된 사람이 많아요.”(41면)라는 대사 안에는 일반 대중들의 불공평함에 대한 억울함과 한탄과 자조가 섞여 있다. 해방 후 부자가 된 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가 아니라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13) 식민지시기부터 탐정소설의 범인이 요부, 독부였던 점을 감안하면 해방기 방인근의 탐정소설은 식민지시기의 특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답습하고 있었다.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에서도 후처인 숙경이 본부를 살해하는 요부, 독부의 이미지였음을 상기하면, 해방 이후에도 범죄자의 설정 구도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원리였음을 알 수 있다. (최애순, 『식민지 조선의 여성범죄와 한국 팜프파탈의 탄생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009.6, 165-191면 참조) 그러나 식민지시기와 차별되는 부분은 처음에 그렇게 의심하다가 결국 '민족의 원수'인 친일파를 범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4) 방인근은 탐정소설의 배경이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은 협소하다고 하며, 국제적으로 넘어가고 스케일이 커야 한다고 했다. 국내가 너무 무대가 좁아 할 수 없이 중국이니 일본이니 남양(南洋) 등으로 외국 배경으로 한다고 한다(방인근, 『탐정소설론』, 『한국 근대대중소설 비평론』, 태학사, 1997, 198면. <탐정소설의 배경> 부분 참조)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누구는 별 노력도 없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누구는 먹고 살기도 힘든 불공평한 세상이 해방 후 펼쳐진 것이다. 『국보와 피적』도 해방 후 갑자기 부자가 된 피달수를 다룬다. 피달수의 집에서 열리는 파티는 당시 돈과 권력(고위 공직자와 미군)의 유착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sup>15)</sup> 공직자나 미군과 모의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정의도 없고 법도 없고, 돈이 최우선인 시대로 인식되었다.

“그럼 이야기하마 내 이름은 하마구찌다. 그 음을 따서 함 구진이라고 조선 성명을 짓고 조선 사람 행세를 해방 후부터 하였다 너도 알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십년 전에 빈주머니를 들고 조선 와서 왜떡장사 술장사 이것저것 해서 돈을 벌어서 가지고 동양척식과 각 은행의 관리와 협동해서 큰 재산을 벌었다. 내 회사도 많고 진고개에 내 상점도 많았다. 그중에도 나는 골동품 장사가 그중 중요했다. 그때 피 달수는 내게 자주 와서 친해지고, 그는 어느 박물관에 근무하였다.”(89면)<sup>16)</sup>

“그건 알 필요 없다. 그런데 갑자기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은 집과 재산을 버리고 본국으로 되돌아 가게 되니 분할 것이 없지만 내 재산이라는 건 다 조선 사람의 피를 굶어온 게지만 그래도 아깝고 분해서 갈 수가 없었다. 지금 피군이 사는 집도 내집이었다. 나는 피군과 의논해서 집과 본점 상점들을 다 주고 나만 조선 사람 행세를 할 테니 숨겨 주고, 그 밖에 회사나 뭐든 공동으로 경영하자고 하였다(……)(89면)

“이놈 피 달수야 너 같은 **친일파** 너 같은 놈이 있기 때문에 조선이 망

15) 조성권, 『한국조직범죄사: 조직범죄와 정치권력』 개정증보판, 한성대학교 출판부, 2013, 39-64면 참조. 미군정의 ‘집권당인 한민당은 일제하의 관료 출신과 상당수가 친일 전력을 가진 인사들이었다. 특히 한국 경찰의 역사는 미군정의 책임의 깊이와 비극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해방 직후 국내 각처에서 도망하거나 은신하고 있었던 친일 경찰들은 미군 진주와 함께 ‘계속 근무’라는 포고문 발표로 다시 복귀하여 미군의 가장 충실한 통제 장치가 되었다. (김민철,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책세상, 2012, 242면 참조)

16) 방인근, 『국보와 피적』 한국장편문학선집 춘해편, 현문사, 1976. 이하 이 소설 인용은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한 게야. 앞으로 독립이 되어도 너 같은 놈이 있으면 또 망할게다.. 아! 독립되는 것도 못보고 죽는 게 원통하다.”/ “독립? 네까짓 민족이 독립이야. 독립되어도 우리 일본이 이 담에 다시 먹고야 말걸. 너 죽기 전에 알기나 해라. 우리가 조선쌀을 그동안 얼마나 실어다가 일본 가서 팔았는지 아니? 그게 다 조선놈을 시켜서 한 게야. 피군도 알지마는 그래서 일본서 또 물건을 갖다가 여기다가 퍼치거든 안팎으로 돈이 남아서 우리가 억만, 장자가 된거야.. 그 뿐인 줄 아니, 관리들을 끼고 이권(利權)을 얻고 물자를 얻어서 그 남는 돈을 우리는 일본 정부에 바친다. 우리는 여전히 착취하고 그 심부름은 너희 조선놈이 하거든, 그러니 백성은 쌀이 없어, 야단, 물가는 등등하고---- 민심은 소란하고 좌우익 싸움 정당 싸움, 탐관오리---- 되긴 뭐 되어 망하고 말걸.” 함 구진은 폭포처럼 말을 쏟았다.(98면)

『국보와 피적』은 해방 직후 민족 정서에 반하는 일본인과 친일파가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피달수와 함구진에게 감금되어 위기에 처한 장비호의 ‘독립을 못 보고 죽는 게 한’이라는 말에서 이 소설이 1948.8.15일 이전에 창작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sup>17)</sup> 조선이 해방되었는데도 조선에 있는 재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선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본인 하마구찌(함구진), 조선인이면서 조선인의 피를 빨아 먹으며 자신의 배를 불리는 친일파 피달수와 같은 인물들 청산하지 못한 채 흘러가던 해방기 정국<sup>18)</sup>에서 민족의 피 맺힌

17) 해방은 되었지만,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독립을 맞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비호 탐정이 소설 내에서 피달수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민족의 독립을 못 보고 죽는 게 한이라고 내뱉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식민지시기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인근의 탐정소설은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서지정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규명하기조차 힘들다. 그러나 방인근이 그때그때 시대적인 사건을 중간 중간 삽입하거나 자신의 이전 작품들을 거론하는 것을 통해 작품의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18) 해방기 친일파들은 해방 직후 숨어 지내거나 민족 재판을 받거나 쫓겨 다녀야 했으나,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식민지시기 관료나 경찰들이 다시 복귀하면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반탁

한을 국보를 훔친 도적을 잡아 응징함으로써 대리 해방감을 맛보게 한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쌀을 모두 일본으로 실어 날랐던 산미증산계획에 일조한 것이 다름 아닌 민족의 배신자인 조선인이었음을 일본인 함구진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어 독자의 분노를 더 극대화시킨다.

『국보와 괴적』에는 민족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부분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 고구려의 금귀걸이와 신라의 금관을 도적당했다는 설정부터가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며, 장비호 탐정을 응원하게 한다. 국보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들여야 하고, 이겨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게다가 훔친 범인이 친일파와 일본인으로 민족의 원수로 설정되어 있어 독자의 정의감과 애국심은 한껏 고조된다. 이들을 잡아 들였을 때를 ‘승리’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마치 일본과의 전쟁을 치른 것과 흡사한 기분임을 느끼게 해준다. 『국보와 괴적』은 탐정소설의 범인 설정이 국가 이데올로기와 무관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가가 동원해서 잡아들여야 할 범죄자 집단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민족의 적’으로 지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싸움터에서 패배를 당하면 이처럼 맥이 없고 사람의 가치가 없어지는 모양이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그러할 것이다. / 한편 승리한 장비호와 백형사는 호기당당하고 전신의 피가 기쁨으로 뛰어들 굴조차 환하고 웃음의 꽃이 활짝 피었다. 생존경쟁에 승리한자! 정의로 승리한 국가! 이것은 가장 행복스러운 것이다. 하늘에 둥둥 떠있는 비둘기처럼 떠있는 구름들도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방인근, 『국보와 괴적』, 현문사, 1976, 233면)

---

운동을 벌이던 친일파들은 애국자로 둔갑이 되었고, 친일파 청산은 반공주의에 가려져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김민철,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책세상, 2012, 242면)

『국보와 괴적』은 방인근이 탐정소설로 전환한 뒤 『살인마』 다음으로 쓴 작품이라 장비호의 추리에 공을 들인 작품이다. 동경, 상해를 넘나들며 범인을 잡아들이는 장비호의 활약과 마지막에 보물이 있는 장소를 추리해 내는 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국보와 괴적』에서는 장비호의 종횡무진, 보물찾기 모티프, 막 들어오기 시작한 미국 문물 등 해방 이후의 활기가 반영되는가 하면, 장비호의 여자들과 얽히는 관계와 ‘탐정은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의 식민지시기부터 이어져 온 국내 탐정소설의 규칙<sup>19)</sup> 등의 고전적인 탐정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양상들이 혼재해 있다. 『국보와 괴적』에서 범인을 민족의 원수로 내세워 독자의 애국심을 한껏 고취시키며 ‘정의로 승리한 국가임을 내세우던 탐정소설의 이상적인 권선징악 구도는 해방기 다음 작품인 『원한의 복수』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과의 괴리로부터 박살나게 된다. 방인근은 해방기에 친일파 청산 작업이 펼쳐지는 반면, 정반대로 친일파가 경찰로 다시 자리 잡거나 권력을 쥐고 있어<sup>20)</sup> 식민지시기의 울분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먹먹하고 암담했던 혼란정국을 보여준다 친일파 청산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오히려 친일파가 애국자가 되거나 부를 축적하거나 권력을 장악하게 된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

19) 『마인』의 유불란은 주은몽에 품은 애정 때문에 ‘탐정은 연애를 해선 안 된다’는 규칙을 지키지 못해 탐정폐업을 선언한다. 식민지시기 탐정은 끊임없이 여자와 연루되면서도, 그것 때문에 내면 갈등을 겪는다. 그러나 해방 이후 방인근의 장비호 탐정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자들을 마다하지 않는다.

20) 김민철,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책세상, 2012, 242면.

## 2) 친일파와 독립후손가의 뒤바뀐 삶, 권선징악의 전복<sup>21)</sup>-『원한의 복수』

『원한의 복수』(1949)는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버젓이 땡땡거리며 살아 가고 있는데 반해,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당장 먹고 살기도 급급할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대비시켜 주며, 당대 독자의 황당함, 억울함으로 인한 억눌린 분노를 대변해준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살인자(범인)를 독립후손가의 자손으로 설정함으로써, 해방기 정국에서 사법 질서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보여준다.<sup>22)</sup> 법으로 처단 받지 않고 해방 이후에 오히려 부를 축적하며 살아가는 친일파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불편하고 억울한 심기를 건드려준다. 법도 국가도 정의구현을 해 주지 못하는 시대에 방인근은 탐정소설에서 ‘권선징악 구도의 무너짐<sup>23)</sup>’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방인근의 탐정소설은 단행본으로 출간됨으로써 잡지나 신문에 실리기에는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린다. 권선징악 구도가 명확하여 인물이 평면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방인근의 탐정소설의 가치는 바로 당대 대중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21) 해방 후 1950년대까지 일반 대중은 경찰이나 사법 제도를 믿지 않았다. 식민지시기 경찰이 해방 후에도 여전히 경찰로 복무하였으며, 사법 질서도 미군과 친일파가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유착이 된 상황에서 권선징악 구도가 여지없이 무너진다.(김민철,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책세상, 2012, 242면 참조)

22) 해방 이후 쫓겨 다니거나 숨어 다니던 식민지시기 경찰이 미군정 하에서 다시 복귀했으며, 정권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선과 악의 구분이나 사법 질서, 범죄자 처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없이 깨어지기에 이른다.(김민철,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책세상, 2012, 242면)

23) 해방기에만 친일파와 독립후손가의 뒤바뀐 위치로부터 권선징악 구도가 깨진 것은 아니다. 전쟁기와 전쟁 이후인 1950년대 범죄영화에서의 살인자를 오영숙은 ‘선한 살인자’, ‘인간적인 범죄자’로 지칭한다. 이는 당대 사법 질서가 대중과는 괴리를 양산했고 법에 따라 처벌받는 자들은 결국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오영숙, 『1950년대 범죄멜로드라마와 고백 장치 연구』, 『영화 연구』 25, 2005.4, 78면)

점이 문단에서 외면당한 방인근의 탐정소설이 재판에 재판을 거듭하며 판매부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원한의 복수』는 〈괴 문은 칼〉이라는 살인사건을 알리는 소재목을 내 세워 조정태의 아내가 칼에 꽂혀 죽은 사건으로 시작한다. 조정태는 기미년 3·1운동이 일어난 때 헌병보조원이었다. 『원한의 복수』는 장비호 탐정이 사건에 대해 알아내는 것보다 먼저 독자에게 조정태라는 인물의 과거 내력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럼으로써 범인이 누구인지 독자가 장비호 탐정보다 먼저 알게 된다.<sup>24)</sup> 장비호가 한참 범인을 집 안에 있는 내부 인물 중 하나로 추적하고 있는 와중 4장 〈과거로〉에서 “잠깐 독자의 궁금을 풀기 위해서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여기 밝히려고 한다. 그것은 최후까지 끌고 나가서 독자를 안타깝게 하기를 원치 않는 까닭이다.”라며 과거 원한에 얽힌 범인의 내력을 독자에게 이야기 해 준다. 이렇게 전반부에서 독자에게 범인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은 서스펜스 스릴러 양식에서 독자가 범인이 언제 밝혀질까를 지켜보는 것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방인근의 탐정소설에서 범인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sup>25)</sup>은 스릴을 고조시킨다기보다 범인에게 ‘감정이입’이 되도록 하는 효과를 지아낸다. 『원한의 복수』에서 과거 스토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살인자로 지목되어야 할 범인이 악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범인은 안타깝게도 과거에 헌병보조원이었던 조정태에게 고문을 당하여 독립운동가인 아버지가 죽게 되고 어머니마저 조정태에게 속아 재산을 다 빼앗긴 후 죽어서 고아가 된 인상화이다. 독자는 범인의 내력을 읽고 나서 그를 악한으로 몰고 갈 수가 없게 된다. 오히려 범인에게 감정이입하여 동정을 하게

24) 장비호 탐정의 역할은 범인을 밝혀내는 지적 두뇌 게임의 승리자가 아니다. 방인근의 장비호 탐정은 범인을 밝혀내는 역할보다 범인을 소탕하여 징벌하는 정의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25) 독자에게 범인을 미리 알려주는 방식은 전쟁기 탐정소설인 『악마』에서도 사용된다. 이에 관해서는 전쟁기 탐정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되는 것이다. 방인근의 『원한의 복수』는 해방 후 친일파가 독립유공자로 둔갑하기도 하고, 민족의 변절자가 애국자로 탈바꿈하기도 하는 등, 해방기 선악의 구분이 모호했던 양상을 드러내 주고 있다<sup>26)</sup>

우진혁과 조정태는 동창이었다. 우진혁은 삼일운동 당시 만세 사건으로 도망하다가 잡혀서 모진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 그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헌병 보조원이었던 조정태였다. 조정태는 우진혁의 아내 화선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하여 결혼까지 한 후, 화선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서 다른 여자와 달아나 버린다. 이런 긴 내력을 먼저 이야기해 주어서 독자로 하여금 조정태라는 인물에 대한 분노를 키우게 한다. 범인은 바로 독립운동가 우진혁과 화선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방인근의 소설은 철저하게 악한을 설정한다. 대부분 범인을 악한으로 설정하는데 『원한의 복수』에서는 범인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고, 희생자인 조정태는 죽어 마땅한 친일변절자다. 그런데, 탐정소설에서 벌을 받아야 하는 악한, 즉 범인이 되어야 할 조정태가 희생자의 위치에 놓이고, 범인은 독립후손가의 아들인 인상화가 되어 권선징악의 구도가 깨지게 된다. 방인근의 범인과 희생자의 위치를 바꾼 설정은 친일파가 해방 이후에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오히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가난하게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원한의 복수』에서 장비호 탐정이 사건 해결에 나섰음에도, 범인이 예고한 조정태의 살인을 막지 못한 것은, 당시 대중의 감성을 고려했다고 보인다. 친일파 조정태는 현실에서라면 법적 처벌을 면했겠지만<sup>27)</sup>, 대중 감성으로는 어떻게든 벌을 받아야

26) 정운현, 『독립유공자로 둔갑한 친일파』, 『친일파는 살아 있다』, 책으로보는세상, 2011, 204-207면 참조.

27) 친일파 처벌을 위한 반민 특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친일 행적이 파악된 사건 682건 중 재판까지 간 경우는 221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이 난 경우는 40건, 실제 감옥에 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고작 14명에 그쳤다. 친일파 대부분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아예 재판조차 받지 않았던 것이다.(반민 특위, 두산동아백과사전) 심지어 '양심적 친일파

만 했기 때문이다. 사법질서로는 벌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복수에 나선 인상화에 독자들이 함께 분노하고 공감했던 것이다. 조정태가 살고 인상화만 처벌을 받는다면 방인근이 내세운 탐정소설의 권선징악 구도와 정의로운 탐정의 역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기 방인근의 탐정소설은 권선징악, 인물의 선악 대립구도가 명확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악한 자에게 분노하고 그가 벌을 받기를 바란다. 대중은 현실의 팽박함이나 답답함을 탐정소설로 해소했다. 악한 범인이 얼른 잡혀서 국보를 되찾기를 바라고, 사람을 죽여 놓고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버젓이 살아가는 친일파가 더 이상 활개를 치지 않기를 바란다. 방인근은 탐정소설의 조건으로 재미와 함께 ‘권선징악’을 꼽는다.<sup>28)</sup> 그러나 『월한의 복수』는 범인을 잡고 나서도 후련하지가 않다. 권선징악의 구도가 여지없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방 후 친일파가 남의 재산을 빼앗아 부를 축적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가 희생자가 되었다고 해서 희생자에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범인으로 전락한 독립후손가의 자손에게 감정이입이 된다. 해방기 탐정소설에서의 ‘권선징악’ 구도의 붕괴는 1950년대 범죄영화에서 ‘선한 살인자’라는 모순된 표현으로 표출되기도 한다.<sup>29)</sup> 해방 이후 방인근의 해방기 탐정소설은 친일파, 독립운동가의 후손의 주객이 전도된 뒤바뀐 삶, 부정한 부의 축적(사기, 밀매, 밀수

‘가짜 애국자’라는 논리로 친일파 청산 과제를 무력화시켜 나갔다.(이민영, 『식민사회의 기억과 국민국가의 기획』, 『한국현대문학연구』 52, 2017.8, 367면 참조)

28) "거리나 사회에는 탐정소설 이상의 죄악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사법에는 도음이 되고 자료가 되고 수사상 편의를 주기도 한다. 이 세상에 가득찬 범죄사실을 어떻게 요리하고 처치하여야 할 것을 가장 깊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이 탐정소설이다. 그러므로 **탐정소설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의 표본**이다. 권선징악은 케케묵은 시대에 뒤떨어진 소설형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급의 소설 거의 전부가 권선징악의 소설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천리요 인간의 이성인지라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의와 선을 사랑하고 불의와 악을 미워하는 것은** 영원불변할 진리일 것인데 이것을 표현하는 탐정소설을 그르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방인근, 『탐정소설론』, 『한국근대대중소설비평론』, 조성면 편저, 태학사, 1997, 196-197면).

29) 오영숙, 『1950년대 범죄멜로드라마와 고백 장치 연구』, 『영화 연구』 25호, 2005.4, 77면.

입, 권력 유착, 재산 갈취 등)에 대한 민족의 분노가 과거에서부터 오래된 원한으로 응어리져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적 법리체계보다는 돈이 우선했던 시대, 그래서 법을 믿을 수 없었던 시대였음을 방인근은 『원한의 복수』에서 범인을 악한으로 설정했던 그동안의 구도를 깨뜨림으로써 무질서하고 가치가 정립되지 못해서 혼돈스럽고 정의롭지 못했던 해방기를 포착해 내고 있다. 방인근의 해방기 탐정소설은 식민지시기의 원한과 복수 코드를 답습하면서도 그 시대의 분위기를 포착해내고 있다. 특히 해방기 가장 민감했던 문제인 친일파 청산을 건드림으로써, 이후의 국내 탐정소설이 범인으로 공산당이나 간첩을 설정하여 적나라하게 반공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면서 누락되어 왔던 사법체계와 권력의 유착관계, 그로 인한 범인과 희생자의 뒤바뀐 선악구도 등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해방기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환골탈태하여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이나 분노를 표출하여, 독자의 대리만족이나 카타르시스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 3. 전쟁기 탐정소설의 탐정의 악화와 범죄자 계층의 형성

방인근의 탐정소설은 권선징악이 명확하다. 범인은 반드시 민족의 원수이거나 악한이고 그 악한은 처벌받아 마땅한 자이며, 장비호 탐정은 그래서 정의수호자이다. 그러나 해방기 방인근의 탐정소설의 범인이 민족적 원수로 설정되었다면, 전쟁기 방인근 탐정소설의 범인은 일그러지고 왜곡된 성 관념으로 자신의 애정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못생기고 추한 남자로 변모된다. 전쟁기 이후의 작품에서 범인은 ‘스파이’, ‘간첩’으로 설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탐정소설에서 범인을 누구로 설정하는지는 그 시대 대중의 감수성과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1950년대 탐정소설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일조했다면, 방인근의 전

쟁기 탐정소설은 전쟁고아나 부랑자를 범죄자로 내모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의 전쟁기 탐정소설은 어떻게 도시 빈민, 부랑자들이 범죄자 계층으로 전락하며 사회적 낙인이 찍혔는지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탐정소설의 ‘권선징악’의 구도는 전쟁기에도 유지되지만, 악한 혹은 범죄자로 내세우는 인물 구도가 해방기와는 달라진다. ‘고아 소년’, ‘추남’, ‘애정에 보상을 받지 못한 자’, ‘일방적인 애정의 집착자’, ‘일그러진 성 소유자’, ‘동성애자’ 등으로 소위 사회의 ‘부적응자’, ‘소외된 자’로 구성되고 있다. 범인을 일그러진 성의 소유자와 소년의 공모관계로 설정한 것 역시 방인근이 당대 범죄 양상을 민감하게 포착해 낸 부분이라 주목을 요한다. 이들이 왜 당대 범죄자로 등장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며 전쟁기 방인근 탐정소설의 범인 설정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 1) 탐정의 약화, ‘독자는 범인을 이미 알고 있다’-『악마』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에서 해방기와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은 장비호 탐정의 활약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강렬하게 남는 것은 징글징글하고 추악한 범인들이다. 애정(육망)의 집착자 혹은 범죄공모조직 악한들이 잡히기까지의 과정이 강렬하게 부각된다. 장비호가 사건을 해결했다는 기억보다는 작가가 직접 그간의 사정이나 내력을 설명하여 독자가 이미 범인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보와 괴적』에서 장비호는 “아직 이 나라에서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하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해서”(10면) 사건을 직접 찾아다닌다고 밝히며 누구냐는 질문에 늘 축탁 증명서를 내보이곤 한다. 국내에서 탐정소설의 탐정 전통이 미약함을 알고 억지로 내세우기보다는 실현가능하게 접근하려 했던 방인근의 노력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에서 ‘탐정’의 활약 대신 강조된 것은 무엇일까. 그의 탐정소설은 당대 독자에게 무엇을

전파했던 것일까.

방인근은 대구 문성당 朱仁龍과도 친분이 있고 정비석 등의 작가와도 교류하는 등, 부산으로 피난 가 있으면서도 대구를 자주 왕래한다.<sup>30)</sup> 전쟁기에 문성당에서 출판한 장비호 시리즈는 『악마』(1951)와 『범죄왕』(1951)이 대표적이다. 그 중 『악마』는 1937년 일본 고베에서부터, 해방을 맞이하기까지의 긴 기간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에서는 탐정이 주인공이 아니다. 『국보와 괴적』에서 동경과 상해를 종횡무진하고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찾아내느라 동분서주했던 장비호 탐정의 활약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악마』(문성당, 1951)에서 장비호는 작품 말미에서 잠깐 등장하고 만다. 작가가 범인을 이미 도입부에 독자에게 다 알려주고, 이후의 서사는 희생자의 복수 스토리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첫 장부터 〈무서운 살인범〉, 이어 〈둘째 번 살인〉으로 살인범의 범행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시작한다. 오랜 친구 태욱을 살인하고 그의 재산을 빼앗은 치달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태욱의 딸이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녀마저 지하굴에 가두어서 죽게 내버려둔다. 이후 서사는 태욱의 딸이 이사 온 집주인에게 기적처럼 발견되어 살아나서 복수를 감행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범인의 범행 장면을 독자에게 다 보여주고 희생자가 치달을 추적하여 찾아내기까지의 과정이 고스란히 전개되는 동안 장비호 탐정은 등장하지 않는다. 장비호 탐정은 작품이 끝나갈 무렵 11장이나 되어서야 등장한다.

해방기 『원한의 복수』와 전쟁기 『악마』는 범죄자의 범행을 독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서술 방식에서 비슷하면서도 장비호 탐정의 역할이 확연히 다르게 전개된다. 해방기 『원한의 복수』에서 〈피 묻은 칼〉에 꽂힌 시체가 발견되고 장비호 탐정이 처음부터 등장하여 범인이 집 안 내부인일

30) 방인근, 『황혼을 가는 길』, 삼중당, 1963, 254면. “대구에 가끔 가니 거기 김팔봉(金八峰), 김영수(金永壽), 최정희(崔貞熙), 정비석(鄭飛石), 장덕조(張德祚)가 모두 글을 써서 그날그날을 지내는 모양. 부산에서는 김래성(金來成)과 나의 무대라고 할 만하였다.”

것이라고 추적하는 것으로부터 전개된다면, 전쟁기 『악마』에서는 장비호 탐정의 역할이 약화되고 복수를 감행하는 희생자의 활동 스토리가 끝날 무렵까지 펼쳐진다. 해방기와는 달리 탐정의 시각이 아닌 범죄자와 희생자의 시각으로 전개된다. 『원한의 복수』가 식민지시기 『마인』에서처럼 범인의 과거 내력을 작가가 전지적인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악마』에서는 치달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에서부터 애경이 구출되어 복수하기까지의 과정을 치달과 애경의 시점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범죄자와 희생자의 시각을 독자에게 제시한다는 것에서 『악마』는 우리가 식민지시기부터 꾸준히 답습해 온 탐정소설과는 다른 양 식임을 알 수 있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풀어가는 수수께끼 게임이나 범인의 기상천외한 범행 방식을 밝혀내는 탐정의 활약을 쫓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보통 범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 고전적인 탐정소설의 공식이라면, 범인이 누구인지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 밝혀질 것인가를 탐정(혹은 피해자)과 함께 추적하는 것은 서스펜스 소설이다.<sup>31)</sup> 독자는 작품 전반부부터 애경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공감하며 따라가게 된다. 애경이 치달을 마주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스릴감이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범인이 치달임을 처음부터 독자에게 알려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독자에 비해 뒤늦게 등장한 장비호 탐정은 달리 할 게 별반 없어 보인다. 일반적인 서스펜스 소설에서 희생자가 언제 구출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악마』에서는 희생자 애경이 초반부에 이미 구출되고, 이후 그의 복수 스토리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서스펜스 소설이 범죄가 부각

31) 서스펜스 소설은 '희생자가 언제 구출될 것인가' 하는 독자의 감정을 최대로 이용한다. 독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범죄자의 시각, 희생자의 시각, 주변 인물들의 시각을 차례로 공유한다. 따라서 서스펜스 소설은 독자가 탐정의 지적 게임을 따라가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범죄자 혹은 희생자의 관점에서 범죄가 언제 발각될 것인가, 희생자가 언제 구출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긴장에 몰입하게 된다.(이브 뢰테르, 『추리소설』, 김경현 역, 문학과 지성사, 2000, 146-151면 참조, 추리소설의 유형 중 〈서스펜스 소설〉 부분 참조)

되고 희생자가 범인을 쫓아서 범인의 범행이 언제 발각될 것인가에 대한 긴장과 스릴을 강조한다면, 방인근의 탐정소설에서는 범행을 미리 알려주고 그 자리를 복수를 위한 추적과 애정 스토리로 채운다.

애경이 남장을 하고 성우와 같은 방에서 동침할 때나, 중수(치달의 아들)의 부인 매리를 유혹할 때, 독자는 이미 애경이 여성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애경과 성우 사이에서 스릴감을 느끼기도 하고, 애경과 매리와의 관계에서도 묘한 긴장감에 말려들기도 한다. 이처럼 탐정보다 독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치달이 언제 애경에게 발각될 것인지, 혹은 애경이 남장한 게 언제 밝혀질 것인지 등의 서스펜스 스릴감을 느끼게 해 준다. 『국보와 괴적』의 첫 문장은 “탐정 장비호(張飛虎)는 자기 집에 꾸며놓은 대한 십삼도를 모형을 크고 넓은 정원을 거닐면서 **최근 미국서 나온 탐정 소설**을 읽었다.”(9면)로 시작한다. 방인근은 미국 탐정소설을 읽으며 새롭고 낯선 양식을 익혔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새로운 양식으로 전개되고 후반부까지 탐정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쟁기 탐정소설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식민지시기부터 독자에게 익숙한 원한에 얽힌 복수 코드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방인근 탐정소설은 권선징악, 즉 원한에 얽힌 복수와 같은 전근대적인 요소를 전제로 서사를 끌고 가기 때문에, 독자는 낯선 양식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련한 피해자가 원수를 갚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 서사의 주체도 장비호 탐정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긴 희생자 애경(태욱의 딸)이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애경은 남은 생을 원수를 갚는 데 할애한다. 독자는 언제 애경이 악마 같은 치달을 찾을 수 있을까 조아리며 함께 추적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나 애경은 동경, 중국, 부산을 거쳐 해방이 되어 서울로 올 때까지의 긴 기간 동안 치달을 찾을 수 없었다. 그 긴 시간 간극을 매우는 서사는 운길이라는 남성으로 변장한 애경과 성우 사이의 묘한 긴장관계와 성우에게 애인이 생기자 이상한 감정에 휘말리는 운길(애경)의 심리이다. 동성애적 감정과 이성애 사이에서 묘한

같음을 느끼는 『악마』의 애정관계<sup>32)</sup>는 이후 『괴시체』에서 동성애를 직접적인 소재로 다루게 된다. 이런 탐정소설과는 무관한 서사가 꽤 긴 분량으로 차지하고 있어, 애경은 7장 〈원수를 만나서〉에서야 비로소 원수 치달과 마주친다. 애경이 치달을 마주했을 때의 감정은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달된다.

(틀림없는 치달이다!)/ 애경이 단언을 내리니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전신의 피가 끓는것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애경은 이 흥분을 진정하기에 한참 걸리었다. 그리고 무척 무서우면서도 쥐를 만난 고양이의 쾌감과 반가움도 생기었다.<sup>33)</sup>

방인근의 탐정소설에는 해방 후 일확천금을 얻어 부자가 된 자들이나 사기나 횡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이 범죄자로 등장한다. 해방 후 돈이 최대의 가치나 권력이 된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 돈 앞에서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을 다루는데 그로 인해 인간관계에서의 신뢰가 깨지는 양상을 그리고 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시작되어 자식 세대까지 이어진 오래된 원한 관계는 『원한의 복수』에서부터 방인근이 설정한 방식이다. 전 근대적인 원한에 얽힌 살인 혹은 범죄는 식민지시기 『마인』에서부터 국내 탐정소설의 공식처럼 소비되었다.<sup>34)</sup> 해방기 『원한의 복수』에 이어, 전쟁기 『악마』는 1937년 식민지시기부터 오랜 기간 걸친 원한으로 얽혀 있지만, 해방기와 달리 복수대상이 ‘민족의 원수’가 아니라 돈 때문에 친구

32) 애경은 복수를 위해 남성으로 변장하여 치달의 아들인 중수의 부인 매리를 유혹한다 이때도 남성으로 변장했지만 여성임을 알고 있는 독자는 동성애적 연애를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악마』, 문성당, 1951, 115면. 〈8. 복수의 제일보〉 장 참조)

33) 방인근, 『악마』, 문성당, 1951, 98면. 이후 이 책 인용은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34) 1930년대 김내성의 『마인』에서도 결국 두 집안의 부모 대에서 이어진 원한에 얽힌 복수가 살인의 원인이다.

를 살인하고 그 딸도 죽이려 한 ‘배신자, 악한 개인’이다. 전쟁기는 범죄의 원인을 사회에서 찾기보다 개인의 일탈이나 성격 결함, 악한 본성 등으로 규정해 나간다.<sup>35)</sup> 그래서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개인은 범죄자 계층을 형성하며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사회적 낙인이 짙히게 된다.

## 2) 전쟁기 소외된 자들의 범죄자 계층 형성-『괴시체』, 『범죄왕』

1950년대 방인근 탐정소설에서 장비호 탐정이 수사보다는 애정이나 애욕적인 정서로 치우치거나 하는 등의 양상<sup>36)</sup>은 해방 이전의 모리스 르블랑의 모습과 1950년대 미국 범죄소설<sup>37)</sup>의 영향이 충돌하여 혼재된 면모라 볼 수 있다. 권선징악, 의리를 내세우면서도 다가오는 여자를 마다하지 않는 장비호 탐정은, 식민지시기부터 이어져 온 국내 탐정소설 속 탐정의 면모를 보여준다.<sup>38)</sup> 해방 후 사립 형사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장비호 탐정은 전쟁기를 거치며 혼돈을 겪는다. 고전적인 탐정과 미국 범죄소설의 혼합 양상은 한국 탐정의 모습에 모순과 충돌을 불러 일으켰으며, 장비호 탐정이 195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1950년대 범죄, 섹스, 성적 탐닉, 마약, 살인, 강도, 부정적 부의 축적, 사기, 남의 재산을 가로챌 등이 만연했던 당시의 무질서한 상황을

35) 하금철은 1950년대 후반 미국식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도입 속에서 부랑이나 범죄자들의 불량성은 개인의 우범적 소질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빈곤의 범죄화와 ‘우범소질자’의 탄생- 일제 강점기~1950년대 부랑아 문제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2017.9, 241-243면 참조.

36) 박승숙, 『방인근의 탐정소설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34, 2016.8, 82면. 3장 <탐정소설의 지향과 애욕의 세계> 참조.

37) 1940~1950년대 미국 필립잡지의 범죄소설이 『아리랑』, 『명량』을 통해 활발히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대중들은 그 이전인 전쟁기부터 미국 범죄소설을 접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얼 스탠리 가드너나 미키 스피레인 작품이 1955, 1956년 번역되어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이후 『학원』 등에서 유럽 고전 추리소설을 제치고 번역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이른 시기부터 탐정소설을 창작하던 방인근은 훨씬 이전부터 미국 탐정소설을 접했다고 작품 내에서도 밝히고 있다.

38) 『마인』의 유불란 탐정, 『염마』의 백영호 탐정 모두 여자와 얽혀 있다.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 장비호 탐정의 혼란한 양상은 전쟁기를 거치며 탐정소설 양식과 범인 설정 구도의 변모에서 기인한다.

수수께끼나 미스터리에 집중하는 고전적인 탐정소설의 배경은 상류 계층의 응접실이나 백만장자의 대저택, 경영진의 사무실 등이다.<sup>39)</sup> 그러나 이런 범죄는 일상적이거나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최초의 탐정소설에서 등장했던 살인자들은 여전히 ‘위험’하거나 ‘범죄자 계층’에 속한 실제 범죄자들, 그리고 빈민가나 홍등가에서 발생하는 실제의 범죄와 어느 정도 관련을 맺고 있다.<sup>40)</sup> 그동안 응접실의 수수께끼 게임이나 미스터리가 가려져 숨겨져 있던 어둡고 음습한 실제 범죄 공간과 범죄 자체의 부각이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sup>41)</sup> 전쟁기 범인 설정의 변모는 그간의 탐정소설에서 탐정의 역할이 강조되어 조명되지 않았던 실제 범죄의 영역인 빈민가의 실제 범죄, ‘범죄자 계층’을 부각시킨다.

장비호 탐정은 1950년대 전쟁기에 출판된 방인근의 탐정소설에서 종종 여자나체를 마주하게 된다. 1956년 무렵부터 미키 스피레인이거나 얼 스탠리 가드너와 같은 미국 범죄소설 작가의 작품이 단행본으로 출간되고<sup>42)</sup> 대중잡지에도 심심치 않게 번역된 사례를 접할 수 있다.<sup>43)</sup> 그보다 이른 시기부터 탐정소설을 창작한 방인근의 작품에서 장비호 탐정이 미키 스피레인의 마이크 해머와 닮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쟁기에 출판된 『괴

39)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동연 역, 도서출판 이후, 2001, 56-57면. 이 책에서는 ‘고전적인 추리소설’로 번역되어 있으나 방인근이 탐정소설이라 용어를 쓰고 있고, 그의 소설에 ‘탐정소설’이라고 표제명이 달려 있어 본 논문에서는 탐정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40)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동연 역, 도서출판 이후, 2001, 57면.

41) 최애순, 『1950년대의 어두운 뒷골목 이야기』, 『미스터리』 19호, 2018.8/9, 27-24면 참조.

42) 미키 스피레인, 『녹색 카드의 공포』, 동아문화사, 1956; 얼 스탠리 가드너, 『성당의 십자가』, 이몽석 역, 동아문화사, 1956.

43) 최애순, 『『학원』의 해외 추리·과학소설의 수용 및 장르 분화 과정』, 『대중서사연구』 제 21권 3호, 2015.12, 280-287면. <동시대 미국 범죄소설의 유입> 부분 참조.

시체』와 『범죄왕』에서 선정적이고 애욕적인 정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범죄왕』은 서문에서부터 드러내놓고 ‘애욕편’임을 강조하고 있다. 『범죄왕』(문성당, 1951)은 장비호 탐정이 알려지고 난 후에 방인근이 부산 피난지에서 청탁을 받아 쓴 것이다.

내가 몇해동안 탐정소설을 쓰는 중 대개는 장비호 탐정을 등장시켜 눈부신 활동을 하였다. 그래서 독자는 장비호에게 호감이 커지고 사건마다 여자와 관계가 되는데 그 해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나는 이번 부산으로 남하해서 소설 몇 편을 썼으나 탐정소설을 당분간 중지하려고 했는데 대구 문성당 주인룡형이 장비호 탐정을 주제로 해서 써 달라고 간청해서 부득이 또 붓을 든 것이다. 그래서 이번은 장비호와 나와의 사적 교제를 중심으로 하고 어떤 무서운 사건에 나도 함께 장비호와 다니며 경험한 것으로 쓴 것이다 그리고 애욕편이라 명명했는데 앞으로 기회있는데로 다른 편들을 발표할까 한다 이번에도 두 여성이 관계되는데 그의 결혼이 언제 될런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그의 연애사건보다 그의 천재적 탐정이 더 발휘되매 세계에 자랑할만한 명탐정이 되도록 하는데 나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단기 4284년 8월 부산에서<sup>44)</sup>

『살인마』, 『국보와 괴적』, 『원한의 복수』에 이르기까지 장비호 탐정은 매 사건 해결에서 만난 여자와 애정관계에 얽힌다. 1950년대 탐정소설에서 범죄사건은 대부분 여자로 인해 시작하고 여자와의 연애에 얽힌다. 장비호가 매 작품마다 여자관계에 얽히고 그 여자 모두가 장비호를 둘러싸고 삼각·사각관계로 중첩되는 것은 식민지시기부터 이어져 온 한국 탐정의 면모이다. 식민지시기 한국 탐정은 ‘탐정은 절대로 여자와 연애해선 안 된다.’ 라는 규칙을 신봉하며, 여자와 얽힐 때마다 고민에 빠진다. 『마

44) 방인근, 『범죄왕』, 문성당, 1951, 서문.

인』의 유불란 탐정은 결국 탐정페업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범죄왕』에 〈애육편〉이라는 부제가 달리는 것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애육과 범죄 살인사건이 얽힌 탐정소설 유형은 1950년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양상으로 전쟁기 이후 탐정소설에서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sup>45)</sup>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에서는 범인 설정이 애정을 갈구하던 대상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추한 남자로 바뀐다. 이 애정관계는 남녀 둘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혼자만의 일방적인 구애나 집착 형태로 나타나다 여자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좌절감에 결국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에서의 일그러진 애정관계는 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연인관계, 유엔공주로 전락한 여성, 돈 때문에 애인을 버리고 늙은이를 택한 부도덕으로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의 탐정소설에서 범인은 적어도 부유한 자들이거나 겉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는 잘생긴 자들이었다.<sup>46)</sup> 그러나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에서부터 가난하고 어두운 뒷골목에서 부랑하는 추하고 지질한 자들이 범죄자로 등장하게 된다. 소위 범죄자 계층을 빈민, 부랑아, 고아로 설정하여 그들을 구제 대상이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질 나쁜 개인으로 몰아가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위험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기에 이른다.<sup>47)</sup>

45) 최애순, 「50년대 『아리랑』 잡지의 '명랑'과 '탐정' 코드」, 『현대소설연구』 제 47호, 2011.8, 362-368면. 〈탐정소설과 예로의 결합〉 부분 참조.

46) 『마인』의 오상억이나 주은몽은 미모를 겸비하였고, 방인근의 소설 『악마』의 치달의 아들인 중수를 애경은 처음에 마음에 둔다. 그만큼 외모에서부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자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악마』에서의 범죄는 부유한 집을 상대로 그 집의 지하실에 애경을 가두거나, 애경의 복수에서도 치달의 저택에서 그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실행하거나 하여 벌여지는 사건으로 범행 장소 역시 부유한 집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후 『범죄왕』이나 『괴시체』의 범죄 공간과는 차이를 보인다.

47) 하금철은 1950년대 부랑아를 '우범소질자'로 분류하며 '빈곤의 범죄화가 작동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빈곤의 범죄화와 '우범소질자'의 탄생』, 『진보평론』 제 73호, 2017.9, 225-253면) 소현숙,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84집, 2018.3, 345-348면. 〈부랑아에 대한 시선과 사회적 대책〉 장 참조.

『괴시체』(대지사, 1952)는 전쟁기 부산에서 출간된다. 기차여행의 설렘, 남녀간의 미묘한 긴장감, 온천여행 등의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살인마』, 『국보와 괴적』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작품이 『괴시체』보다 먼저 쓰여 졌음을 알 수 있다.<sup>48)</sup> 장비호는 『살인마』에서 낚시질 가서 물속에 빠져 죽은 나체미인을 본 이후로, 나체 괴시체를 두 번째로 본다고 한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적인지 경계가 불분명해진 세계에서 죽은 시체, 희생자는 돈 많은 부호(나윤석)의 소실 엄숙자이다. 『괴시체』와 『범죄왕』에서 사건의 발단에 있는 도시 가정에서 부인인 본처는 시골에 따로 있고 소실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실 혹은 첩이 오부, 독부로 굳어져 범인으로 설정되던 식민지시기와 달리, 희생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괴시체』에서 오영실을 피어서 편지를 전하고 유인한 자는 ‘소년’이다.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에서 희생자를 납치하고 유인하여 우두머리에게 데려가는 이는 ‘소년’이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와 헤어진 어린 소년이 범죄의 늪에 빠져서 조직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던 전쟁기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sup>49)</sup>

영실은 내려서 소년을 딸아갔다. 이근처는 **빈민굴로 계사딱지같은 집**

48) 『괴시체』의 서지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2018년 여름호 계간 『미스터리아』에서 해방 이후 1950년대까지의 추리소설 서지목록에 따르면, 방인근의 『괴시체』는 영인서관에서 1946년에 최초로 간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945-1959, 전율의 시대』, 『미스터리아』 19호, 엘릭시르, 2018, 8/9, 47면 참조) 작품 내에서 백형사가 ‘암살사건으로 바빠서 온천으로 직 접 오지 못한다는 설정이 있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이승만 암살사건이 발생하는데, 작품이 출간되던 1952년에 삽입된 장치라 그 암살사건을 암시한다. 따라서 『괴시체』는 그 전에 출간된 것이 아니라 전쟁기인 1952년 부산 경성 인쇄소에서 출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괴시체』에서 방인근이 자신의 이전 작품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승만 암살사건을 삽입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방기 작품이 아닌 전쟁기 작품이라고 판단했음을 밝힌다.

49) 소현숙,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한국근현대사 연구』 84, 2018, 3, 343-344면 참조.

**이 많고 복잡하였다.** 거리를 지나서 절근처에 외따로 떨어진 조그만 함석집이 있었다./ “이 집예요.”/ 소년이 들어서서 대문을 잠근다.(『괴시체』, 대지사, 1952, 96면)

이지하실은 움집으로 이방과 옆에 방과돌이 있는모양이었다. 움이라든 몹시 기괴해서 밖았날이 치웁것만 흑근흑근하고 이상한 냄새가 났다. / 밖았집은 추가로 작으만한대 이웁은 부엌으로해서 뒷문을열고 뒤웁안에다가 파고 담이 둘러 있어서 겉으로봐서는 이집에 움이 있는것을 알수가없었다. 문이라고는 옆방으로 통하는 두터운 널판쪽 문이 있을뿐 사방이 흙벽이어서 캄캄도하려니와 아모리 소리를 쳐도 밖에 들리지 않게 되었다.(『괴시체』, 98면)

범죄 장소는 더 이상 이층 저택의 가정집이 아니다. 게딱지같은 집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빈민굴이 범죄 현장으로 제시된다. ‘외따로 떨어진 조그만 함석집’은 『범죄왕』에서 제시되는 스리, 강도, 소매치기의 빈민촌 범죄 뒷골목과는 다른 분위기를 조성한다. 범인이 둘 다 고아원 출신으로 이들의 외롭고 소외된 사회적 위치가 반영된 공간이라 볼 수 있다. 범인은 생김새부터 앞니가 빠져서 귀신이나 괴물처럼 추한 남자이다. “다시보니 그소년의 얼굴도 세상에 드문 추한얼굴이었다. 이가 누렁고 덧니가 많이 낫는데 눈하나가 적고 눈동자가 제대로 박히지 않고 흰자위가 많이 보이는 병신이였다.”로 소년의 생김새 또한 추하고 악마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독자가 소년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느낄 수 없게 한다. 더불어 “저 놈이 내 여편네 노릇을 한다”, “사내 여편네가 어떤지 넌 모를게다”라는 용팔이의 말로 표현됨으로써, 마치 소년이 원해서 아내 노릇을 하고 영실을 질투하는 것처럼 묘사된다. 오히려 범죄자인 용팔이가 운길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리고 있다. 소년의 몸이나 유린당하는 성에 대해서 전쟁기 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소년 운길은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와 성적

유린의 대상으로 자신을 이용하는 용팔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에서 소년의 범죄 공모<sup>50)</sup>는 전쟁기 고아의 비뚤어진 성장과정과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했던 당시 사회인식을 대변해준다.

『괴시체』에서 서로 의지할 곳 없는 고아원 출신의 용팔과 운길의 ‘남성 끼리의 동성애’<sup>51)</sup>를 그리고 있다. “남자와 남자끼리 내외처럼 잔다는 말을 들었다마는 과연 이들은 부부처럼 지내는 것일까? 영실은 모든 것이 추악이고 무서웠다”(103면)라는 영실의 대사는 당시 대중의 인식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괴시체』는 전쟁기 고아, 동성애자, 신체 불구자 등을 사회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이들을 격리시켰음을 알 수 있다. 용팔은 엄숙자라는 미모의 여성을 사랑했지만 못한 자신의 외모로 인해 거절당한다. 엄숙자는 다른 돈 많은 사내에게 시집을 가 버리고 용팔은 복수를 계획한다. 정상적인 애정관계를 이룰 수 없는 용팔은 역시 고아원 출신의 의지할 곳 없는 운길과 함께 지내며 기묘한 동거를 하는 것이다. 용팔과 운길에 대한 외양 묘사를 더없이 추하게 그려 놓고 이들 관계를 징그럽게 묘사함으로써 독자에게 고아 소년에 대한 일말의 동정이나 감정이입도 허용치 않는다. 1950년대 전쟁기에 고아 소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거리의 불량자들이 범죄소굴로 들어간다고 기사화<sup>52)</sup>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냉담했다

50) 소현숙,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3, 344면.

51) 고아원에서 지내던 아이들은 그곳에서의 생활도 열악하여 탈출하거나 혹은 시설에 있을 수 있는 나이까지 있고 나더라도 그 이후에 고아원을 나온 이후 다시 불량아가 되거나 생존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괴시체』의 ‘연장고아’ 용팔은 역시 고아원 출신인 운길을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용팔과 운길의 관계는 『범죄왕』의 추상수와 소년의 관계와는 또 다른 양상을 내포한다.

52) 『부산시, 거리의 불량아 대책 시급』, 『자료대한민국사』 제 28권, 1953.3.28; 『부산시, 예산문제로 불량아 시설 수용 산업 난항』, 『자료대한민국사』 제 28권, 1953.1.10; 『소년 보호대책은 어찌 되었나, 전쟁고아의 범죄 격증』, 『자유신문』, 1953.11.17, 2면; 『부랑아 家境 조사 市警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에서 이처럼 고아 소년을 범죄자로 설정하여 더없이 추하게 묘사한 것은, 고아 소년, 거리의 불량자를 범죄자로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 거리의 불량자와 범죄 관련 기사, 그리고 전쟁기 탐정소설에서 추하고 징그러운 범죄자로 등장하는 고아 소년들은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다시 한 번 버려져야 했다.

전쟁터에서 훼손당한 신체처럼, 못생기고 추악한 남자가 미모의 여성을 사랑했지만 거절당하는 설정은 전쟁기 다른 작품인 『범죄왕』에서도 반복된다. 이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불구가 되거나 다른 남자에게 애인을 빼앗긴 남성의 심리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53)</sup> 정상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할 수 없었던 전쟁기 남성들이 배신의 대가로 살인, 납치, 복수를 감행하거나 비정상적인 성적 탐닉이나 기묘한 동거로 파편화되고 일그러진 성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범죄자가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럼요 이동네가 이상한 곳입니다. 언뜻 **빈민촌**같으죠. 쓰레기 고물상이 많구요. 그런데 **여기는 절도 강도와 스리가 많은** 곳입니다. 선생님도 이런데 가끔 오셔서 재료를 구하시는게 좋을겁니다. 그런데 이번 귀한은 적어도 이놈들의 **두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목은 아마 큰 집에서 호화롭게 지낼런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절도 강도 단장**이요 **소매치기 대장**일지 모릅니다. 이동네라기에 펴득 그렇게 생각이 들더군요.”(『범죄왕』, 문성당, 1951, 35면)

선도책 강구, 『자유신문』, 1952.2.7, 석간 2면; 「**惡에 물들린 불량아 당국서取締를 強化**」, 『마산일보』, 1954.2.19, 석간 2면; 「전쟁고아, 불량아 등 수용 교화 목적 국제직업소년학교 설치」, 『현대사연표』, 1955.8.1; 「거리의 불량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보』, 1957.5.1.

53) 전쟁기 김송의 「불사신」(『전선문학』, 1953.5)에서 영철은 전선에서 돌아와 보니 애인 초희가 다방 레지에서 동서생활을 하다 형의 첩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한다. 전쟁기 후방 공간에서 성의 타락과 애정의 배신은 주로 다방레지나 미군 혹은 부호의 첩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통해 그려진다. (최애순, 「1950년대 전쟁기 부산·대구의 피난지 문화」, 『국제어문』, 제 78집, 2018.9, 102-107면 참조) 방인근도 「유엔공주님」(『희망』, 1952.5)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한다.

『범죄왕』의 범죄 장소 역시 쓰레기 고물상이 많은 빈민촌이다. 그리고 그 빈민촌 자체가 절도 강도 스리가 많은 범인들이 모여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1950년대 전쟁기 ‘범죄자 계층’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과 함께 형성된다.<sup>54)</sup> 『범죄왕』에서 미선을 추상수가 있는 곳으로 유인하는 이도 ‘소년’이다. 『괴시체』에서는 고아원 출신의 소년들이 함께 동질애로 엮여서 동거하는 양상을 그리고 있다면, 『범죄왕』은 범죄의 우두머리, 일명 왕초인 추상수가 있고, 그 범죄조직의 하수인으로 매수된 소년을 그리고 있다.<sup>55)</sup> 『범죄왕』에서 추상수가 사는 곳을 빈민촌, 절도, 강도, 스리가 많은 곳으로 묘사하고 추상수를 소매치기 우두머리, 두목으로 표현한 것은, 고아, 거리의 부랑아를 상대로 한 범죄조직이 만연했음을 암시한다. 방인근의 탐정소설에는 고아, 거리의 떠돌이 생활을 하는 소년들이 ‘범죄’ 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전쟁기 상황이 담겨 있다. 추상수가 미선의 아들 수장이를 납치하고 미선을 협박하는 것은 과거 미선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배신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랑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지 않을 경우 복수를 감행하는 전쟁기 방인근의 탐정소설 속 남성들은 괴물에 다름 아니다. 추상수에게도 민자와 준이라는 아내와 자식이 있음에도 미선의 남편을 죽이고 미선을 납치하여 오지의 섬에 감금한다. 방인근의 해방 후 탐정소설이 친일파에 대한 복수라든가 원한에 관한 것이라면, 1950년대 전쟁기 탐정소설은 일그러지고 어긋나서 보상받지 못한 애정에 대한 복수이다. 추상수가 미선을 납치하여 데려간 범죄소굴의 온상이 된 오지의 섬을 비롯한 강도 스리군들의 빈민촌 어두운 골목이 전쟁기 실제 범죄 장소로 등극하게 된다.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을 통해 어린이 납치와 금품 요구, 부녀자 유괴 등의 사

54) 하금철, 『빈곤의 범죄화와 ‘우범소질자’의 탄생- 일제 강점기- 1950년대 부랑아 문제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제 73호, 2017.9, 225-253면.

55) 소현숙,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84집, 2018.3, 344면.

건이 일상에 만연해 있었고, 섬에 자신의 수하를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조직이 꾸러지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이런 범죄조직의 꼬나풀로 ‘소년’이 이용되었다는 사실<sup>56)</sup>은 비극적이다. 그럼으로써 식민지시기와는 또 다른 자본주의 하에서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범죄자 계층’으로 부상하게 되는 현실을 짚어준다.<sup>57)</sup>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에는 동성애 코드, 일그러진 성, 부정한 부의 축적, 미국 자본주의 소비 등 전쟁기 혼란했던 국내 상황이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다. 해방기에 정의의 사도 역할을 했던 장비호 탐정의 역할도 전쟁기 탐정소설에서는 점점 줄어든다. 희생자의 동선을 따라가기에 바쁘다. 심지어 『악마』에서는 마지막에 잠깐 등장한다. 『범죄왕』에서도 장비호 탐정은 여자와 염문을 뿌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국내 탐정소설은 더 이상 탐정이 주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보다는 범죄자 계층이 형성되고 어두운 뒷골목의 범죄 장소와 납치, 유괴, 살인 등의 범죄 자체가 부각되어<sup>58)</sup> 범죄자의 시각이나 희생자의 시각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범죄자 계층’이 형성된 것은 개인의 문제로 돌린 탓이 원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탐정소설에서 대중의 냉담한 시선을 담아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고아, 부랑아를 범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정반대로 그것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게 하는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대중문학은 이처럼 대중 감성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면서도 전혀 예기치 않은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의 범인 설정 역시 거리의 부랑아, 거지, 고아, 가난한 자 등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당대 대중의 감성과 그들을 범죄 유발자(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했던 공권력의 인식이 반영되었지만, 오히

56) 『방임 못할 불량소년들 투쟁이·소매치기 등으로 전락 일로』, 『경향신문』, 1953.8.18.

57) 하금철은 일제 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부랑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시선으로부터 빈곤의 범죄화가 양산되었다고 한다. (『빈곤의 범죄화와 ‘우범소질자’의 탄생- 일제 강점기-1950년대 부랑아 문제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제 73호, 2017.9, 229면.

58) 최애순, 『1950년대의 어두운 뒷골목 이야기』, 『미스터리』 19, 2018.8/9, 27-34면 참조.

려 정반대로 소위 ‘범죄자 계층’에 대한 불합리하고 모순된 시선이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개인의 탓으로 돌렸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됨으로써 탐정의 역할보다는 국가의 공권력인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온갖 범죄가 만연했던 전쟁기에 수수께끼 풀이의 탐정의 역할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전쟁기를 거치며 국내 탐정소설의 경향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범죄소설로 기울게 된다.<sup>59)</sup> 1950년대 대중 잡지에서 탐정소설이라고 달린 것들이 ‘여자’로 시작해서 파멸로 끝나는 구성을 취하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복수, 카타르시스, 범인과의 대결, 정의 구현과 같은 한국의 유정한 탐정의 모습은 1950년대 탐정소설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애정소설, 애욕소설의 인물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장비호 탐정도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보다는, 뒤로 갈수록 여자들과의 관계가 더 얽혀 있어 주객이 전도된다. 한국 탐정소설이 전쟁기 이후에 애정소설이나 애욕소설로 흘러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전쟁기를 거치면서 겪은 탐정의 약화는 오늘날 장비호 탐정이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도 영향을 끼쳤다. 전쟁기 이후 1955년, 1956년이 되면 공산당, 간첩이 범인으로 설정된 것과 다르게, 방인근의 전쟁기 탐정소설은 일그러지고 왜곡된 성의 소유자와 고아 소년이 범인이 된다. 일그러지고 왜곡된 성의 소유자인 추한 남자를 범인으로 설정하고, 부랑아 고아 소년을 혐오스런 외모와 범죄소굴의 꼬나풀로 묘사함으로써 1950년대 전쟁기로부터 소위 고전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어둡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도시 빈민, 고아, 부랑아, 거지가 ‘범죄자 계층’으로 형성되게 된다.

59) 오영숙은 1950년대 범죄가 급증하여 범죄라는 주제가 하나의 일상처럼 유포되었다는 것이 범죄영화 대두의 한 원인이라 한다. 1950년대 쉴 새 없이 대중잡지에 연재되던 탐정소설과 헐리웃과 프랑스에서 온 범죄영화가 한국 사회에 만연된 범죄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오영숙, 『1950년대 범죄멜로드라마와 고백 장치 연구』, 『영화 연구』 25, 2005.4, 76면)

#### 4. 한국 탐정소설에서의 범인 설정 계보

방인근의 탐정소설은 장비호 탐정이 등장하는 창작 탐정소설만 읽힌 것은 아니다. 『방화살인사건』, 『마수』 등을 비롯하여 루팡 탐정소설이나 『살인범의 정체』에서 에밀 가보리오의 르콕 탐정 번안소설로도 많이 읽혔다.<sup>60)</sup> 방인근의 장비호 탐정이 정의를 외치고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까지 종횡무진하고 여자들과 얽히게 되는 루팡의 모습을 닮은 것은, 작가의 번역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더불어 방인근은 『마도의 향불』이나 『방랑의 가인』에서부터 시대적인 유행이나 이슈를 짚어내는 감각이 뛰어난 작가이다. 『국보와 괴적』 같은 탐정소설에도 “저 술은 서양술 '부란디인데 전에 그런 술을 사다 먹은 일이 있나요?”(19면) “그답에 소개하는데 무슨 무역회사 사장이니 전무 또 군정청 무슨 부의 고관이니 하고 여자들은 한꺼번에 그대로 인사하는데 가지각색의 여인이 모이었다. 그리고는 미군 장교가 셋이 있는데(……)”(62면) 등에서 서양 술 브랜드, 미국문화 사교댄스의 유행이라든가 무역회사 사장<sup>1)</sup>이나 전무, 군정청 고관, 미군 장교 등 당시 소위 잘 나가는 직업 군상들과 그들 간의 유착관계를 작품 배경 곳곳에 포석으로 깔아 놓는다. “미국 탐정소설을 읽는” 장비호 탐정의 모습을 통해 고전적인 영국과 불란서의 탐정소설에서 벗어나 미국 범죄소설을 읽기 시작했음을 암시하는가 하면, 미군과 고관대작들의 부정적인 부의 축재와 법의 테두리보다 돈의 힘이 더 컸던 사회임을 보여주고 있다.

60) 최애순, 『식민지시기부터 1950년대까지 모리스 르블랑 번역의 역사』, 『국어국문학』 156권, 2010.12, 303-334면. 『살인범의 정체』(제일문화사, 1953)에서는 에밀 가보리오의 르콕 탐정을 번역하기도 했다.

61) 무역회사 사장이나 전무 등 무역업의 성행은 같은 시기에 창작되었던 1950년대 전반기 정비석의 소설인 『여성전선』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중문학은 잡지에 실리는 단편 위주의 본격문학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당대 문화적 흐름을 짚어내는 데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민감했던 방인근이 탐정소설에서 ‘범인’을 누구로 설정했는지를 따라가 보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양상을 짚어보는 것이라 의의가 있다. 본격적인 탐정소설이라고 볼 수 없지만 살인사건과 그에 따른 심문, 취조 과정이 나오는 1930년대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에서 본부(本夫)를 살해한 범인은 후처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 탐정소설 『마인』과 『염마』에서도 범인은 후처로 설정된다. 후처 혹은 첩을 요부, 독부로 묘사하며 더할 수 없는 악한 살인범으로 각인시켰던 1930년대 탐정소설의 범인 설정은 가부장적 지배 이데올로기와 본처들이 공모하여 결탁한 결과였다.<sup>62)</sup>

탐정소설은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적’ 혹은 ‘범인’을 누구로 설정하는지가 관건이다. 범인으로 설정된 자는 그 시대의 악인이며 이데올로기의 공공의 적으로 간주된다. 기관지였던 『해군』이나 『전선문학』에서 끊임없이 내세우던 반공 이데올로기는 강한 선전문구로 강요되지만 탐정소설에서 범인으로 설정된 이는 문화적으로 잠식되어 대중에게 스토리로 각인된다. 1950년대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 기관지 잡지나 본격문학의 잡지보다 장비호 탐정이 잡아내는 간첩 스토리의 파생효과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방인근은 자신의 『탐정소설론』에서 실제로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이 탐정소설의 중요한 소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어쨌든 스케일이 큰 세계적인 탐정소설이 나와야 하고 이번 전쟁과 공산당의 지하공작, 6·25때 대한청년들이 잠복(潛伏)하던 것, 학살사건 등 좋은 재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리산, 한라산 등 공비토벌과 그들을 잡는 피맺히는 사실 등은 보통소설보다는 탐정소설로서 훌륭한 것이 될 것이다.<sup>63)</sup>

62) 최애순, 『식민지조선의 여성범죄와 한국 팜프파탈의 탄생』, 『정신문화연구』, 2009, 6, 187-189면 참조. <결론: 악녀 후처의 등장과 팜프파탈의 고착화> 부분 참조.

방인근이 탐정소설론에서 언급한 대로, 전쟁기 이후 1950년대 탐정소설에는 공산당의 스파이 활동을 다루는 ‘첩보소설’ 유형이 부상한다. 방인근도 『국제 살인마』(창문사, 1954)나 『미인 스파이』(대지사, 1956)와 같은 스파이, 첩보를 다루는 탐정소설을 창작한다. 전쟁을 치른 후 국내 정서는 1948년 해방기와는 달리, 반공이 가장 중요한 체제 근거이자 지배 이데올로기로 등극했다.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는 남한 국가의 정당성의 원천이 되었으며, 해방기의 친일파 문제는 더 큰 명분인 반공에 덮여씩워지면서 소멸되어 갔다.<sup>64)</sup> 1950년대 탐정소설은 대중문학의 작동 원리에 따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공산당이나 간첩을 범인으로 설정하여 반공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켜 나갔다.

전쟁기 이후 탐정소설에서 미키 스피레인의 『녹색 카드의 공포』(동아문화사, 1956)나 이몽석의 『삼마선』(동아문화사, 1956)<sup>65)</sup>에서는 범인은 공산당 스파이, 간첩이다. 전쟁기 이후의 탐정소설은 스파이 첩보소설 유형이 자리잡게 된다. 『백가면』에서 국내 스파이인 백가면이 우리편(좋은 놈)으로 설정되었던 것과는 상반되게, 195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국내 스파이가 오히려 상대편(나쁜 놈)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민족의 원수=민족의 적=간첩**’이라는 설정은 1950년대 탐정소설에서 ‘분단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물려 장르 공식으로 부각된다. 이몽석의 『삼마선』은 분단시대의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범인을 간첩으로 설정하고 있다. 탐정소

63) 방인근, 『탐정소설론』, 『한국 근대대중소설 비평론』, 조성면 편저, 태학사, 1997, 199면.

64) 김민철,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책세상, 2012, 250면.

65) “동대문시장 물가와 남대문시장 물가 차이가 있는 원인을 아는가 라든지 인천 항구로 이북 간첩만이 오류명 침입 하였는다는데 요다음엔 그놈들을 일망타진해야겠다는 등 화제를 만곳으로 돌리는 것이었다.”(이몽석, 『三魔線』, 동아문화사, 1956, 142면)에서 볼 수 있듯, 1950년대 상황이 들어 있다. 서지목록에 1930년대 작품으로 되어 있으나 확인 불가하고, 작품 중간에 1950년대를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이 삽입되어 있다.

설에서 범인을 누구로 설정하는가는 당시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것이므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범인을 간첩으로 설정하여 반드시 잡아서 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설정은 1950년대 반공 표어나 국가기관의 홍보 문구 이상의 과급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나는 해방후 쪽 이북 괴뢰집단이 양성하던 간첩 단체를 연구해 왔어. 그 단체가 어떤 조직과 어떤 루트를 밟아서 이남에 침투하며 재신(在申) 공비와 연결하고 있는가를 나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네가 소유한 암호 해독과 서류에 의하면 너는 막대한 운동자금을 가지고 있다. (……)”(이몽석, 『삼마선, 동아문화사, 1956, 243면)<sup>66)</sup>

“(……) 너는 **간첩**이라고 자칭 했으나 사실 간첩이란 대명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더 악독한 놈이다. 자기 고향과 조국을 팔고 자기 부모형제의 재산에 불을 지르고,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을 너는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네가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되 너의 성미나 학식으로 봐서 그 주의에 도취된 것이 아님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구 보면 그런 **간첩행위로 해서 일약천금을 꿈꾼 것이 확실하니 너는 분명히 보통 간첩보다도 더 유해하고 비열한 놈**이다.”(이몽석, 『삼마선』, 동아문화사, 1956, 246면. 〈18장 민족의 적(敵) 부분〉)

66) 이몽석의 『삼마선』은 서전의 작품을 번역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공간이 정동을 비롯하여 한국 지명이 줄곧 나오고, 인물들의 이름도 한국으로 되어 있으며, 작품 내에서의 시대상황 설정이나 범인 설정도 1956년 당시 국내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 번역이라기보다 번안 혹은 제 2의 창작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1956년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간첩 사건을 삽입시키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 5. 결론

대중문학은 당대 대중의 욕망과 사회문화의 유행이나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더불어 위로부터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데도 일조한다. 탐정소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탐정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국내 탐정소설에서 생소한 탐정은 현재 살아남지 못했다. 오히려 국내 탐정소설의 의의는 냉철한 이지과 추리와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는 탐정에 대한 기대보다 민족의 원수인 범인이 독자와 대결을 펼치는 카타르시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탐정소설에서 범인을 누구로 설정했는지는 그 시대 이데올로기와 대중의 감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탐정소설의 독법도 탐정을 중심으로 읽는 것에서 '범인'을 중심으로 읽는 것으로 변모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1950년대에 고전적인 탐정소설이 밀리고, 미국 범죄소설이 유입된 것은, 탐정소설에서 탐정이 아닌 '범죄'가 부각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전쟁기 탐정소설에서 장비호 탐정의 추리력이나 멋들어진 사건해결이 부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범인들의 범행이 얼마나 민족의 분노를 사는가, 얼마나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독자의 감정 고조와 카타르시스로 소설을 이끌어나간다.

문학잡지나 군기관지와는 달리 단행본으로 출판되어 재판까지 발행되던 대중소설은 자생적으로 흐르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욕망이 강하게 꿈틀거린다. 방인근의 탐정소설에는 해방기의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살아야겠다는 생존 욕망과 함께 친일파나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 전쟁기 피난지에서의 연애와 소비, 미국 자본주의의 유입과 잔혹한 범죄 경향 등이 들어 있다. 대중소설은 기본적으로 시대가 아무리 발달해도 '권선징악'의 전근대적 요소를 늘 안고 가고, 혼란스러운 정국일수록 불안 심리를 잠재울 정도로 강하고 유혹적인 화려한 소비문화나 유행 코드를 포석으로 깔아 놓는다. 그러한 대중의 욕망과 함께 불안정하고 무질서했던 해방기와 1950년대 전쟁기 방인근의

탐정소설은 친일파나 일본인을 범인으로 설정하거나, 혹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범죄자 계층으로 형성한다. 해방기와 전쟁기의 방인근 탐정소설의 범인 설정은 이후 1950년대 국내 탐정소설의 범인이 간첩 혹은 스파이로 공식화되면서 우리가 지나치고 놓쳤던 것들을 포착하고 있다.

1950년대 국내 탐정소설의 경향은 대부분 범인으로 간첩을 설정하거나 심지어 공산주의자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자이어야만 연애가 성사되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당대 국가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1950년대 탐정소설의 공식과도 같은 범인 설정은 반공 표어나 선전문구로 내걸리지는 않더라도 국가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나 그렇게 이데올로기로 공식화되기에 앞서서 방인근의 해방기와 전쟁기 탐정소설은 해방 이후 국내 정서가 어떻게 변모되어 갔는지, 당대를 살았던 대중이 그 시대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소위 계층이 어떻게 구획되게 되었는지 등의 파란만장했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소홀히 다루어졌고 누락되었던 작품들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국의 저서와 번역서 포함)

- 김영희, 『한국전쟁기 미디어와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대중문학연구회,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대중서사장르연구회,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3: 추리물』, 이론과 실천, 20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1, 책세상, 2012.  
박진영, 『탐정의 탄생- 한국 근대 추리소설의 기원과 역사』, 소명출판, 2018.  
방인근, 『황혼을 가는 길』, 삼중당, 1963.  
오혜진, 『193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 어문학사, 2009.  
임성래,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_\_\_\_\_ 외, 『대중문학의 이해』, 청예원, 1999.  
이정옥, 『1930년대 한국 대중소설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0.  
정비석, 『소설작법』, 신대한도서주식회사, 1949.  
정운현, 『친일파는 살아 있다』, 책보세, 2011.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조성면 편저, 『한국 근대대중소설 비평론』, 태학사, 1997.  
조성면, 『대중문학과 정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정혜영, 『탐정문학의 영역: 식민지시기의 환상과 현실』, 역락, 2011.  
최애순, 『조선의 탐정을 탐정하다』, 소명출판, 2011.

2. 연구논문과 비평들

- 곽승숙, 『방인근의 탐정소설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016.8, 69-98면.  
김내성, 『탐정소설론』, 『새벽』, 1956년 3월~5월.  
김대성, 『제도 혹은 정상상화와 지역문학의 역학 ‘피난문단’과 ‘무크지 시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3, 2011.2, 35-62면.  
김도경, 『전쟁문학, 전쟁과 문학의 메울 수 없는 틈새- 『전쟁문학』에서의 순수문학의 위상변화와 그 의미』,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48집, 2015.12, 167-190면.  
김민철,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 『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 책세상, 2012, 235-272면.  
김옥선, 『『전쟁문학』에 나타난 감정 정치』, 『인문학논총』 제 25집, 2011.2, 103-129면.  
노영기, 『첫 발을 내딛는 미디어 연구, 일보 전진을 기대하며』, 『군사』 제 103호,

- 2017.6, 337-349면.
- 문선영, 『1950년대 전쟁기 피난문단과 경남·부산지역 아동문학 매체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 37집, 2004.8, 301-330면.
- 방인근, 『탐정소설론』, 『소설연구』 제 2호, 서라벌예대 출판부, 1958.
- 배개화, 『『전선문학』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이데올로기와 전쟁 체험의 문학화 방식』, 『개신어문연구』 제 28호, 2008.12, 193-231면.
- 소현숙, 『전쟁고아들이 겪은 전후. 1950년대 전쟁고아 실태와 사회적 대책』,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3, 321-351면.
- 서승희, 『한국전쟁기 대중소설의 서사 전략과 젠더 정치: 이무영의 『사랑의 화첩』과 정비석의 『애정무한』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 30집 2호, 2013, 3-24면.
- 오영숙, 『1950년대 범죄멜로드라마와 고백 장치 연구』, 『영화 연구』 25, 2005.4, 69-92면.
- 尹炳魯, 『김내성론』. 『現代作家論』, 삼우사, 1975.
- 이민영, 『식민사회의 기억과 국민국가의 기획』, 『한국현대문학연구』 52, 2017.8, 363-396면.
- 이봉범, 『잡지 『문예』의 성격과 위상』, 『상허학보』 17, 2006.6, 235-272면.
- 이봉범, 『전후 문학 장의 재편과 잡지 『문학예술』』, 『상허학보』 20, 2007.6, 271-309면.
- 이순욱, 『한국전쟁기 문단 재편과 피난문단』, 『동남어문논집』 제 24집, 2007.11, 173-205면.
- 이승하, 『6·25전쟁 수행기의 한국시 연구-『전선문학』 발표 시를 중심으로』, 『배달밭』 42, 2008.5, 93-125면.
- 이정옥, 『1950~1960년대 추리소설의 구조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15집, 2001.6, 183-202면.
- 장은영, 『한국전쟁기의 젠더 재편과 군인 표상』, 『동남어문논집』 제 44집, 2017.11, 47-76면.
- 장은영, 『전쟁 경험의 문학적 수용과 시적 형상화 양상 재고 육군중군작가단 기관지 『전선문학』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제 63호, 2017.3, 143-173면.
- 전지니, 『『희망』 소개 문예면에 나타난 전쟁기의 윤리 김광주의 『동방이 밝아온다』(1951)와 방인근의 『유엔공주님』(1952)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70집, 2016.3, 103-130면.
- 정명중, 『『전선문학』에 나타난 슬픔의 배제와 증폭』, 『한국언어문학』 제 83호, 2012.12, 393-423면.
- 황중호, 『추리소설의 정통성과 비정통성』, 『소설문학』, 1984년 5월.
- 황중호, 『대중문학으로서의 추리소설』, 『소설문학』, 1984년 8월.

- 최미진, 「한국전쟁기 정비석의 『여성전선』 연구- 소설 창작방법론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 32집, 2017.12, 305-330면.
- 최애순, 「1930년대 탐정의 의미 규명과 탐정소설의 특성 연구」, 『동양학』 42집, 2007.8, 23-42면.
- 최애순, 「식민지 조선의 여성범죄와 한국 팜프파탈의 탄생-방인근의 『마도의 항불』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009.6, 165-191면.
- 최애순, 「1950년대 『사상계』와 전후 신세대 오상원의 휴머니즘」, 『우리문학연구』 제 57집, 2018.1, 407-447면.
- 최애순, 「식민지시기부터 1950년대까지 모리스 르블랑 번역의 역사」, 『국어국문학』 제 156호, 2010.12, 303-334면.
- 최애순, 「1950년대 전쟁기 부산·대구의 피난지 문화」, 『국제어문』 제 78집, 2018.9, 93-128면.
- 하금철, 「빈곤의 범죄화와 ‘우범소질자’의 탄생- 일제 강점기~1950년대 부랑아 문제를 중심으로」, 『진보평론』 제 73호, 2017.9, 225-253면.

## &lt;Abstract&gt;

## The composition of criminals in the detective fiction of Bang In-geun from the 1945~1950s

Choi, Ae-Soon

After the liberation, Bang In-geun began to create detective novels that featured detectives of equipment, rather than romance novels such as *Gain of the Wanderer* or *Magic of the Magic of Madness*. He has created a lot of detective novels such as *National Treasures and Rogues*, *Vengeful Revenge*, *arson murder*, including translations such as *The Killer's Identity*, *An Evil Hand(魔手)*, and *The Secret of Heaven*. However, many of his detective novels are now almost gone, and his memories of detective Jang Bi-ho have faded. Why did detective Jang Bi-ho, who pleaded with numerous readers in the 1950s, disappeared from the land without rumors? In most detective fiction, the most noticeable person is detective. That's why detective novel writers come up with 'Detective' and want the detective to become famous. By the way, in Korean detective novels, detectives are not well remembered. What is the reason? Perhaps it was more exploratory to describe 'the criminal' as the detective information. Starting from raising such a problem, this paper focused on the "criminal", not the detective, paying attention to the phenomenon in which the detective's activity in the detective novel of Bang became weaker during the war.

In this paper, we will focus on who sets the culprit instead of (almost inconspicuous) the role of detective equipment in the detective novel of

Bang In-geun. The question of who sets the culprit in detective fiction is effective in examining the socio-cultural elements of the era, as it is cultivating ideology of the day. In the detective novels of Bang In-geun, the composition of criminals from the liberation period, the 1950s war period, to the 1950s after the war period changes according to each period. Following the changing pattern of the criminal setting from the liberation period, when the enemy of the nation was the criminal, to the wartime period when the owner of the distorted castle and the boy who did not compensate the price of personal affection, look into the emotions of the masses of the era. Through this aspect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perpetrators, I would like to look into the public's oppressed anger, surrogate cathar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justice society, and the public's desire when the whole system collapsed. In addition, in the detective novel after the war, I followed who was setting the criminal.

So far, In-Geun Bang's 1950s detective nove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mainly on detective equipment. However, this paper considers the reason why the detective equipment was currently forgotten because the role of the detective weakened and the position was filled with the rise of the crime itself under the influence of US crime fiction, that is, the crime of the criminal. I want to take a look at. We want to break the classic formula that the protagonist of a detective novel must be a detective, and show that various types of detective novels (such as thrilling feelings or highlighting crimes) have been introduced since the liberation period. The detective novels of Bang In-geun from the period of liberation from 1945 to the war of the 1950s reveal the dynamics and changes of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the books published in unstable times when there was not enough to read were significant in that they melted the public's emotions as they could be more free from ideology than literary magazines and institutions.

Key words: 1945, Liberation Period, 1950s, War Period, Bang In-Geun, Detective Fiction, Detective Jang Bi-ho, encouraging good and publishing evil, Criminal, American Crime Fiction, Crime, Enemies of the People, Revenge, Distorted Sex, *National Treasures and Rogues*, *Vengeful Revenge*, *Crime King*, *Devil*

투 고 일 : 2020년 5월 19일

심 사 일 : 2020년 5월 21일-6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6월 26일